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07.03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집행위, 2025년도 예산안 발표 ... 연구혁신에 135억 유로(6.19)

- 집행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1,997억 유로를 제안, 이는 NGEU에 따른 약 720억 유로의 지출로 보완될 예정
- 호라이즌 유럽 127억 유로를 포함, 연구혁신 예산은 총 135억 유로가 제안되었으며, 디지털유럽프로그램 11억 등 전략적 투자 영역에 총 46억 유로, Erasmus+ 40억 유로, 유럽방위기금(EDF) 14억 유로, 우주부문에 21억 유로 등이 제안됨

○ 집행위, 태양 에너지에 관한 공동 연구혁신어젠다 발표(6.25)

- 동 어젠다는 태양광 발전, 집중형 및 비집중형 태양열 기술에 대한 여러 연구혁신 우선순위를 설명하고, 태양광 기술의 현황과 함께 더 나아가야 할 이유와 방법을 제시
- 한편, 집행위는 지난 6월 20일 기후중립산업법(NZIA)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태양광 발전 가치사슬에서 10만 명의 근로자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'유럽 태양광 아카데미'를 출범

○ 호라이즌 유럽, 인건비 보고 간소화 규칙 도입(6.25)

- 5월에 발효된 동 규칙은 각 수혜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내부 일일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
- 이는 각 직원의 급여와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복잡성을 피하고, 사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수혜자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, 이를 통해 보고가 간소화되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어 오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
- 일일 급여는 하루 업무에 대해 청구되는 고정 금액으로, 실제 보수에 관계없이 근무 일수만 추적하여 산정, 새로운 요율은 기관의 전체 회계 연도의 총 직원 비용을 연간 근무 단위 수(또는 직원 수)로 나누고 다시 215(개인이 1년 동안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수 있는 최대 일 수)로 나누어 계산
- 일일 요율에는 비현실적인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별 상한선이 있으며, 수혜자는 2년마다 이를 업데이트할 수 있음(새 프로젝트에만 적용)

- (기타) ▲집행위, EU R&I 주요 성과를 담은 SRIP 2024 보고서 발간(6.24) ▲ 집행위, 유럽 수소 밸리 구축 진행 현황 보고서 발표(6.25) ▲MSCA Cofund, 27개 프로젝트에 9,620만 유로(6.18) ▲집행위, Large AI Grand Challenge 우승자 발표(6.26) ▲유럽의회조사처, 국가복원계획의 R&I 투자 현황 분석(6.24) ▲집행위, 디지털 10년 정책 프로그램 두 번째 보고서 발표(7.2)